1세대 아이돌 예능 맹활약

메트로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잘던진 류현진 승패 없었다

인천공항 열감지기 에볼라 체크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제2의 메르스 중 출 국에 감염된 여행객이 늘면서 국내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감지기를 통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서민경제 보듬기 나서라

대형마트 매출 줄어도 명품 구매는 고공행진
2분기 해외관광 지출 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 코리아 경제는 상승 · 서민경제는 '꽁꽁'

최근 국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기대비 1.3%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30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도 호조를 보였다. 지난 7월 분양실적이 2008년 이후 매년 같은 달의 물량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경제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 달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달에 비해 0.1%에 불과한 소폭 상승이며 9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수산물 안정세에 따른 것이다. 집세나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이 여전히 높은데다 식음료의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마트는 전년보다 0.3%, 롯데마트는 2.9%, 홈플러스 4.1% 감소했다. 이들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2년 2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유통업체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지 않은 것이다.

◆있는 사람만 즐거운 나라

그런데도 체감 서민경제 악화와 반대되는 집세가 다와 '면역반 사이복'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3일 밝힌 작년 전체 매출 신장률은 2.6%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해외 명품 군만은 4.8% 신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매출이 각종 사회 이슈로 1.1% 신장하는데 그쳤지만 명품군은 9.8% 올랐다.

올해 200만원 이상 명품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 분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백화점 측은 명품 브랜드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는 판매 부진 요인에도 윤달로 웨딩 특수가 몰려 명품을 더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2분기 해외관광 지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통계마저 나왔다.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관광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50억1870만 달러로 점점 진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전 분기의 45억1360만 달러보다 11.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억9670만 달러)보다는 무려 19.6%나 올랐다. 월 기준으로 보면 6월 해외관광 지출액(17억300만 달러)도 사상 최대치로 조사됐다. 1인당 해외관광 평균 지출액은 1334 달러로 전 분기(1148 달러)보다 16.2% 많았다.

/정영훈 울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에볼라 바이러스 살아난 환자 있어

AP 오해 바로잡는 정보 눈길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에볼라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볼라 감염자 2명의 귀국이 결정되자 이들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켄트 브랜틀리(33) 박사는 2일(현지시간) 본국에 도착, 치료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AP 통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정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사상 최대 규모 서아프리카 3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300여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에볼라가 처음 발병한 1976년 이래 감염자 수가 가장 많고 발생 지역도 가장 넓다고 밝혔다.

◆ 살아난 환자도 있어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최고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3국 보건 당국은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살아난 환자도 있다면서 현재 치사율은 약 70%라고 했다. 생존자들은 발병 즉시 병원을 찾아 탈수를 막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다른 질병과 유사 에볼라 감염 초기 증상은 열, 두통, 근육통, 목감기 등으로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등 다른 질병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즉각 알아채기 어렵다.

◆ 체액 통해서만 전염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가 아닌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환자의 혈액이나 땀, 배설물 등과 같은 체액과 접촉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낮다.

/조선미기자 [illegibl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파문 일파만파

Issue&View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황다예기자 vdh@metroseoul.co.kr

군 검찰 폭행 가담 장병 최고 30년 구형… 김무성 대표 강하게 질책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분명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느냐. 왜 이것을 쉬쉬 덮으려고 그러느냐"면서 군의 은폐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강한 질책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 유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전모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운영 등 향후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7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안주는 없다" vs "변해야 산다"

與 '보수혁신 약속' 野 혁신비대위 구성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그동안 당 안팎에 공언해온 새누리당이 혁신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실천해 나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참패 후 혼돈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면 여야 간 치열한 혁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준석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과의 영상대담에서 혁신 구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전략공천을 철저히 배제한 상향식 공천과 당론투표 배제, 당내 혁신기구 상설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탕평 인사'와 대야관계 개선, '수평적 관계'를 위한 새로운 당청 관계도 주요한 혁신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조만간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설 혁신기구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로 대표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부터 3일까지 당 상임고문단, 중진, 재선·초선 등 선수별 의원모임, 시·도당위원장과 각각 단위별 비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비대위는 지역위원회 구성,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의 제반 과정을 한시적인 '관리형'보다는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혁신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당대회는 내년 1~3월 정기 전대 형식으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기에 당 재건과 혁신의 중책을 짊어질 비대위원장으로는 박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원에는 외부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안이 논의된다. /조현정기자 jhj@

굳은 표정의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간담회에서 군 집단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질책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어쩌나…

재보선 파장 으로 표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재보선 파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 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잡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취업 알선 필요'

●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알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의 4가지 취업지원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6.4%가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

'교황 시복 미사' 광화문광장에 4.5㎞ 방호벽

●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 미사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 대책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는 기다란 흰색 방호벽이 둘러쳐진다. 경찰이 최근 조달청을 통해 주문한 방호벽은 일렬로 이으면 길이가 무려 4.5㎞에 달한다.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대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김종덕(사진)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로써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후 사퇴한 지 17일 만에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홍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영상과 언론 디자인 분야 전문가다.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과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내정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리더십과 현장 감각이 뛰어나 문화 융성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됐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영석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을 정식 임명했다.

김 신임 해수부 장관은 30여 년간 해수부에서 근무하며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 대통령 비서실 해수비서관 등 해양과 항만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조현정기자

'나크리' 소멸… 내일까지 비바람

할롱 북상중 이번 주말 한반도 영향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제11호 태풍 '할롱'까지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기상청은 나크리가 3일 오후 3시 소멸됐지만 5일까지는 전국에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할롱도 북상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할롱이 이날 오후 3시 현재 괌 서쪽 약 1280㎞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할롱은 4일 오후 괌 서북서쪽 약 1500㎞ 부근 해상을, 5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00㎞ 부근 해상을 지나 6일 오후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00㎞ 부근 해상까지 북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8일께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고 인근 해상의 파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남부지방을 포함한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이 나크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일 제주공항은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으며 1600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이면도로 제한속도 더 낮춘다

올해 78개 구간 10~30㎞씩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내린 이면도로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면도로 77개 구간(총 연장 76㎞)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추가로 이면도로 7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10~30㎞씩 낮출 방침이다.

경찰은 2011~2013년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의 50.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한 속도를 내린 구간 가운데 65개 구간(총 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는 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명)보다 25.1%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4% 줄었고 보행자 사고 역시 8.5%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다혜기자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인정… 큰 아들 "아버지 10년 전 사망" 진술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의정부지법은 "사안이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께 실시돼 약 10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심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씨의 큰 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아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hj@

1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 시립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이 열렸다. 왼쪽 세 번째부터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순빈 여수시 부의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주철현 여수시장, 최대식 전라남도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

1일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시립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을 가졌다.

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인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10호점)은 지상3층 규모(703.04㎡)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생보재단에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생보재단은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30개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엔 여수시 주철현 시장, 김성곤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다혜기자

'뇌물 수수' IT 공공기관 연구원 구속

특정 업체에 정부출연금 몰아주고 뒷돈 챙겨

IT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신기술인 탓에 장비 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기로 했다.

김씨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하청받은 성씨의 경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공장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2억원은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IT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서울 도심 4년간 대형 싱크홀 13개

상하수도 파손 여파… 원인 미상도 5건

지난 4년간 서울 시내에서 가로, 세로가 각각 2m가 넘는 대형 싱크홀이 13개나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구덩이 안쪽 면적이 120㎡에 이르는 싱크홀도 있었다.

싱크홀은 지반이 땅으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을 말하는데 주변 건물의 기울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동 중인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필요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각종 공사나 상수도 누수, 하수관로 파손, 장기간 압력 등으로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가로와 세로가 2m가 넘는 것은 13개였다. 이 중 5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 한달 동안 4건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다.

시는 싱크홀에 대한 통계 작성 후 싱크홀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의 상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뒤집힌 승용차 인양작업 3일 오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의 한 계곡 하류에 전복된 채 빠져있는 윤모(27·경남 김해)씨의 차량을 119구조대가 발견, 구조 및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청도서 계곡물 휩쓸린 사망자 7명 중 6명 '일가족'

펜션 투숙중 새벽에 계곡 건너다 참변

경북 청도에서 어린이 2명 등 7명이 탄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7명이 모두 숨졌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일가족으로 휴가차 계곡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나머지 1명은 일행 중 딸의 친구로 확인됐다.

3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펜션 앞의 길이 25m, 폭 10m인 콘크리트 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승용차에는 한모(58·여·경남 김해시)씨와 딸 윤모(21)씨, 한씨의 남동생(38) 부부, 이들 부부의 5·2세 아들 2명, 윤씨의 친구 박모(21·여)씨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는 오전 6시5분께 계곡에서 2km 떨어진 하류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모두 숨진 상태였다.

이들의 시신은 청도 대남병원과 경산 세명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휴가지 신원천 주변의 한 펜션에 머물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자칫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길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새벽에 펜션을 빠져나와 계곡을 건너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쌍벌제'에도 불법 리베이트 여전

CMG제약 379개 병·의원 의사 등에 15억여원 제공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상북도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이스라엘 '일방적 승리' 선언?

가자서 철군 개시… 하마스 "항전 멈추지 않겠다"

전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했던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철군을 시작했다.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CNN 등은 이스라엘군이 2일(현지시간) 탱크 등 일부 병력을 가자 남부 칸 유니스 동쪽에서 이스라엘 접경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피란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주민들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통보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도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 작전중단을 결정했으며 병력을 철수한 뒤엔 작전 성공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집트에서 벌일 예정이었던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일 TV담화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땅굴 파괴 작전이 끝나면 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맞서 가자지구 공습을 시작한 이래 26일째 군사 작전을 벌여 왔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는 167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9000명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항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싸우지 바르훔 하마스 대변인은 "네타냐후가 거짓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하마스는 가자봉쇄 해제 전까지 항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이스라엘군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규탄 시위에서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위대가 손으로 'V' 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상어 입 속으로 들어간다?

metro Russia

트릭아트 박물관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트릭아트' 박물관이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릭아트는 원근법 등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평면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 모스크바 트릭아트 박물관은 러시아 최대 규모다.

박물관 큐레이터 아나트 아보티트는 "관람객들은 그림을 만져보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다"며 "특히 상어가 무시무시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림이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한 관람객은 "그림 속 상어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며 "트릭아트의 비밀이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람객은 "내가 전시 속에 누워있다"며 "빨리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에 올려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보티트는 "오래 전부터 현실인지 그림인지 구분하기 힘든 트릭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 관심이 많았다"며 "러시아 전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트릭트 박물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러시아에서 트릭아트가 생소한 분야이고 3D 그림 작업을 하는 화가도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트릭아트를 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슬리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73.10 (-3.02)	541.09 (+4.77)	2.54 (+0.02)	1036.00 (+7.90)

세계 유명 치킨 한자리에 3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해외의 치킨맥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7월 분양 6년 만에 최대

올해 7월 분양 실적이 2008년 조사 이후 매년 같은 달 물량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수는 43곳에서 1만9164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만1939가구에 비해서는 2775가구가 줄었지만 2008년 조사 이후 매년 7월 분양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월 분양 물량이 16곳 8364가구였으며 이 중 경기가 13곳 7057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 2곳 565가구, 인천 1곳 742가구였다. 6월 5곳 1217가구와 비교하면 사업장은 11개가 늘고 물량은 7147가구 늘었다. /김학수기자 kimsb@

로또복권 제61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6	27	34	39	40	1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6,338,311,43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4,519,656
3등	5개 숫자 일치	1,363,58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8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석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81~3
독자센터	(02)721-9881

2012년 7월 30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아 02008

금융권, 中企 돌봄이로 나섰다

정부 창조금융 정책 일환…우수기업 대출 등 지원 강화

금융권이 중소기업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부가 '창조금융'을 앞세우며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대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 등 18개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정책금융공사와 함께 기술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은행권도 기술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지난 1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2016년까지 총자산 260조원, 중소기업대출 125조원, 중소기업 고객수 130만개를 달성해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이 목표"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소기업 금융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금융부를 기술사업팀과 기술평가팀으로 세분화했다.

지난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역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용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평가(TCB) 우수 기업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대상은 신한은행 신용등급 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등급 B+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3%p까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 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이자보전 업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용대출로 3억원을 금리 6% 조건으로 조달할 경우 기보가 3%p 이자보전을 지원해 기업의 조달금리는 3%로 낮춰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은 90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자보전 지원한도는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년이다. 여기에는 이달 기술신용평가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보증기업 뿐 아니라 6월 이전 보증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지원 실적에 비춰 볼 때 약 1500개 기업이 연간 이자비용 250만원 수준의 절감 효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은행연합회,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TDB·TCB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대출 이자보전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해외탐방 모로코 아트라스 산맥에서 점프 건국대학교 해외탐방 프로그램 '2014 여름 뉴 프론티어'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로코 아트라스 산맥에서 점프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계열사 증가

6월보다 5개 늘어

농협 등의 계열사 편입으로 대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수가 한 달 전보다 5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63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68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초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월 1677개, 5월 1684개, 6월 1688개, 7월 1680개였다.

한 달 전과 비교해 편입된 계열사는 11개, 제외된 계열사는 6개다.

농협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등 5개사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국전력공사, GS, 한화, CJ 등은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를 각각 1개사 늘렸다.

반면 삼성은 청산종결과 흡수합병을 통해 월드사이버게임즈와 제일모직을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한진, 금호아시아나 등은 지분매각이나 청산종결 등을 통해 계열사를 각각 1개 줄였다. /송주연기자 [illegible]

올해 UHD TV 시장 1200만대 육박

삼성·LG전자 500만대 목표 점유율 40% 넘길듯

올해 초고화질(UHD) TV 시장 규모가 12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양사 점유율 합계 40%를 넘겨 500만대에 육박하는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3일 TV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UHD TV 수요는 전분기보다 88% 늘어난데 이어 3분기 수요는 전분기보다 103% 늘어난 360만대, 4분기에는 이보다 70% 늘어난 6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상무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160만대 규모였던 UHD TV 시장은 올해 1200만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 말 각사가 신모델을 도입하면서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UHD TV 시장은 중국 6대 TV 메이저와 일본 소니가 주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커브드, 80인치 이상 초대형 화면, 100만원대 보급형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설 상무는 삼성전자의 UHD TV 점유율과 관련 "올해 상반기 1위를 했고, 3월부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며 "기존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하나투어리스트
싸다고 덩실말고
예약! 딱! 끝!
타사비교 필수!
특가
끝판왕
하나투어리스트
검색창에 하나투어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많은 특가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동유럽 4개국 8일
2,144,000
▶8월 21,28일 / 9월 11,18,25일 / 10월 9일
터키완전일주 8일
1,509,200
▶9월 12,19일 / 10월 10,17,24,31일
중국
북경 + 대한항공 탑승 4일
303,300 ▶8월 19,23,30일
상해/항주/주가각 4일
283,300 ▶8월 31일 [아시아나항공 탑승]
335,100 ▶8월 21,22,27일 / 9월 1,16,19일
제남/태항산 5일
398,400 ▶8월 18일,29일
448,400 ▶8월 25일 / 9월 8일
동남아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5일
390,100 ▶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509,100 ▶8월 24,27,28,30 31일
대만(야류/지우펀/딴수이) 4일
550,000 ▶8월 30일
582,200 ▶9월 15,20,22,27,29일
일본
규슈여행 3일
494,600 ▶8월 20 27일
오사카 3일
552,900 ▶9월 1,3,10,14,15,17,21,22,24,28,29일
북해도(후라노/비에이) 4일
748,200 ▶8월 31일 [100% 출발확정]
759,000 ▶8월 29,30,31일
www.hanatourist.com
강남점 1600-6963
예약문의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시공순위 지각변동··· 하반기 분양대전 '눈길'

건설사 순위 따라 안정성·시공능력 가늠할 수 있어

Issue&View 시공평가 후폭풍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지난달 31일 그 어느 해보다 변동이 심했던 '2014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발표됨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건설사가 있는가 하면 종전 순위를 지키지 못해 밀려난 건설사도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삼성물산이 9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2계단 순위가 올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현대엠코와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산업개발을 밀어내고 10대 건설사 진입에 성공했다.

2005년 100위권 밖의 지방건설사에 불과했던 호반건설은 9년 만에 15위까지 수직상승하면서 전국구로 거듭났다. 이외 부영주택, 한라 등의 중견건설사도 실적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힘입어 순위가 올랐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란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사를 수주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곤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순위와 회사의 안정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워낙 많다보니 수요자들이 시공순위를 청약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순위가 오른 건설사들은 이를 마케팅에 활용, 하반기 적극적인 분양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당장 호반건설이 오는 8일 위례신도시에서 1137가구 규모의 '위례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어 ▲부산 명지지구 B6블록 694가구 ▲천안불당 아산탕정지구 1블록 137[illegible]가구, A6블록 705가구 ▲시흥 목감지구 B4블록 560가구 ▲[illegible] 광명역세권지구 2041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영등포 에스티움' 1722가구(일반분양 786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 각각 421가구(49가구), 1938가구(1389가구)를 하반기에 선보인다.

또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구리시를 비롯해 경북 경산, 경남 창원·거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 서천지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한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신규분양을 한다.

증권가, '최초' 마케팅 불붙다

타 업종과 협력··· 수수료인하·자문단 모집 나서

증권가가 고객 마음을 잡기 위해 '최초'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보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이종 분야와 손을 잡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나가는 등 신규 서비스 발굴에 증권사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업활동과 동시에 장애인, 탈북자 등 취약 계층에게 요양·문화예술사업과 같은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대신증권은 밸런스CMA 고객에게 보험료 캐시백과 상조서비스를 할인한다.

자동차보험료 캐시백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이용하는 개인고객 중에서 밸런스CMA 계좌로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하는 경우 3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밸런스CMA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좋은상조'를 이용하면 5% 할인한다. 회원료 납부 없이 본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횟수에 제한 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자문단 활동을 신청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곳도 생겼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15일까지 자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고객자문단 100명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한다.

이트레이드증권 HTS 담당자들이 고객을 찾아가 평소 온라인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듣고, 이를 HTS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민정기자

미스코리아가 선보이는 '살롱실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서 2014년 미스코리아들이 트레제메의 신제품 살롱실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레제메는 이날 타임스퀘어에서 유니레버 트레제메 신제품 론칭 기념 런웨이 헤어쇼를 열었다. /연합뉴스

1천만 요우커를 잡아라

비자 발급 쉽게·복합리조트 조성 등 유인책 마련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연간 400만 명 수준인 요우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에는 복합 리조트가 조성된다. 영종도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제주도에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국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서스템 등을 활용해 기술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가 논의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도자기 만들기 신나요 제7회 국토정중앙 청춘양구배꼽축제가 2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서천에서 열렸다. 축제 가족체험장에서 한 어린이가 도예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조경제? 간단히 말하자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 "700MHz 정책 신뢰성 필요"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를 통해 잘 사는 나라, 잘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고 기업의 목표에 창조를 더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라는 데 대해 혼란스럽고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엔유씨전자를 들며 "이 회사가 녹즙기를 만들 때 슈퍼컴퓨터를 써서 시뮬레이션 해 가볍고 튼튼하고 효율 좋은 기계를 만들어 수천억원 규모의 회사가 됐다. 아이템도 잘 잡았지만 과학기술 핵심을 도입해 가치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존 기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부가해 급성장시킨 이 같은 사례가 100개, 1000개 나오고 국가 메인 스트림 경제를 바꿀 때 창조경제는 쉽게 달성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한 창조경제 성과물에 대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1년 이내에 발굴되는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이디어 자산이 있는데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공급함으로써 출중한 비사 성과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1년 이내에도 발굴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연구들은 2~3년 뒤 성과가 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어떤 사안을 정했으면 그것을 통해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 신뢰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장관은 향후 부처 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은 살아있어야 한다. 인사수요도 있고 정책적 전략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조만간 실·국장급을 중심으로 인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

삼성 냉장고, 독일 소비자평가 1위

슈티프퉁 바렌테스트 "TEST 8월호"서 가장 우수

삼성전자 2도어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BMF 사진)가 독일 대표적 소비자보호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7개국 소비자 정보지 평가 1위에 이은 유럽에서의 8번째 1위다.

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정기 간행물인 'TEST' 8월호에서 삼성전자 BMF 냉장고가 동급 15개 글로벌 브랜드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삼성전자 BMF 냉장고에 대해 "식재료 종류에 따라 최적 온도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실 내부에 성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수한 냉각 속도와 냉장실 온도 편차를 줄인 성은 기술 등 냉장고 기본 성능이 뛰어나다"며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조작 편의성, 청소 용이성 등이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BMF 냉장고는 안쪽에 보관 중인 음식을 쉽게 찾고 꺼낼 수 있는 슬라이딩 선반과 부피가 큰 식재료나 용기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랍식 박스 등을 갖춰 공간 효용과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를 사용해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메탈 재질의 외관과 블루 LED 디스플레이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앞서 삼성전자 BMF 냉장고는 ▲영국 '위치(Which)' ▲프랑스 '크 슈아지르(Que Choisir)' ▲네덜란드 '컨슈먼텐본드(Consumentenbond)' ▲이탈리아 '알트로컨슈모(Altroconsumo)' 등 유럽 7개국 주요 소비자 정보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재영기자

IT기업, '힘겨운 보릿고개' 넘기 안간힘

다음-CJ 게임법인 출범 · 그래텍 e스포츠 자회사 분리

8월을 맞아 IT업계의 분사와 자회사 설립 소식이 쏟아졌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침이 심한 IT업계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한 각자의 경영 부담을 미연에 줄이자는 고충도 담겼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CJ E&M은 지난 1일자로 게임 사업부문을 각각 '다음게임'과 'CJ 넷마블'이란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켰다. 넷마블은 지난 2011년 3월 CJ E&M의 게임사업부문으로 편입됐다 다시 독립법인의 길을 걷게 됐다. 앞으로 다음게임과 CJ넷마블은 대기업의 품을 떠나 험난한 게임 업계에서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

홍성주 다음게임 대표는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게임 전문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큰 포부로 출범했지만 게임 독립법인이 헤쳐가야 할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 영향 등으로 업황이 안 좋아 대형 게임 기업조차 2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임 독립법인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라인업 운영과 경영의 묘가 절실해졌다.

지난 1일 독자법인 출범 1년을 맞은 NHN엔터테인먼트는 창립 1주년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한게임의 모태인 NHN엔터테인먼트는 1년 전 NHN에서 네이버와 분리됐다. 각각 포털과 게임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익수의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창립 1주년이란 뜻깊은 날이지만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워 점심 때 다같이 미역국을 먹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했다"면서 "같은 NHN 출신으로 네이버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 더욱 비교될 것 같다. 게임 규제법 등으로 게임 업계 상황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 신작 출시 등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 분할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위기 타개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동영상 재생서비스 곰플레이어로 유명한 그래텍은 지난달 31일 곰eXP를 e스포츠 전문 자회사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곰eXP는 게임방송 제작을 맡고 그래텍은 영업을 담당해 각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IT기기도 실용성·패션이다"

IT제품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기존에 투박했던 전자제품 디자인이 세련미까지 강조한 상품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IT기기가 또 하나의 패션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휴대폰으로 바로 뽑는다

최근 한국후지필름이 출시한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인스탁스 쉐어 SP-1'은 야외활동에서의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와이파이(WiFi) 연결로 최대 8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해 페스티벌에서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출력하고 바로 나눠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사진을 찍은 순간의 시간과 장소, 온도, 습도까지 알려주는 '리얼타임 템플릿' 서비스를 통해 뮤직페스티벌 순간의 추억을 한 장의 사진에 오롯이 남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은은한 펄이 들어간 화이트색상에 전원표시등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초록색 불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심플함이 더욱 돋보인다.

◆생생한 현장서 놓칠 수 없는 셀카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스마트카메라 'NX미니'는 초슬림 디자인과 컬러풀한 색상으로 여성을 위한 미러리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기능면에서도 여성의 사용편의성을 맞췄다. 180도 회전식 터치 디스플레이로 한 손 촬영이 가능하다.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플립은 윙크만 하면 2초 후 자동으로 찍히는 윙크샷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2009만 고화소 BSI CMOS 센서와 1만6000분의 1초 초고속 셔터스피드 등 DSLR에 버금가는 빠른 성능을 구현했다.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노출 변화가 있을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귀가 즐겁다

브리츠의 블루투스 스피커 'BR-3350 소프'은 하얀 비누모양의 디자인과 크기로 아웃도어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여성 파우더 팩트 사이즈로 한 손에 쏙 들어오며, 밝고 화사한 바탕에 형광 연두색이 어우러져 패션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기능과 음질 역시 빠지지 않는다. 40mm 스피커 유닛이 주변을 붕붕 울릴 만큼 상당한 소리를 내며 블루투스 기능뿐 아니라 AUX 입력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도 갖췄다. 아울러 완충 시 최대 5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장시간 야외에서 음악감상이 가능하다.

/이재영기자

韓 휴대폰 요금 가장 저렴

日 총무성, 세계 7대 도시 이동통신요금 비교

국내 스마트폰 요금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2014년 국제 이동통신 요금 비교조사 결과 서울의 월평균 스마트폰 이용요금이 시장 환율 기준으로 세계 7대 도시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라이트요금(음성 47분+문자 338건+데이터 500MB)의 경우 서울은 2445 엔을 기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이 5245 엔, 독일 뒤셀도르프가 6012 엔, 프랑스 파리가 6012 엔, 미국 뉴욕 6309 엔, 영국 런던 6405 엔, 일본 도쿄 7263 엔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일반요금(음성·문자는 라이트요금과 동일+데이터 2GB)은 서울이 3595 엔으로, 스톡홀름(5245 엔), 파리(6012 엔), 런던(7117 엔) 등 다른 도시보다 저렴했다.

구매력평가지수 환율(PPP 환율·물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을 평가한 환율)로는 서울의 스마트폰 라이트요금은 3493 엔으로 1위, 일반요금은 5136 엔으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3G 피처폰(음성 82분)은 시장환율 기준으로 서울이 1470엔으로 1위, PPP 환율로는 2101엔으로 3위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시장 환율과 PPP 환율 기준으로 서울은 스마트폰 라이트 요금은 가장 저렴했다. 스마트폰 일반 요금은 일반 환율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PPP 환율 기준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일본 총무성은 매년 도시의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도쿄는 NTT 도코모, 미국 뉴욕은 버라이즌, 영국 런던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프랑스 파리는 오렌지, 독일 뒤셀도르프는 T 모바일, 스웨덴 스톡홀름은 텔리아소네라, 서울은 SK텔레콤이 조사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 등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여름재활캠프 LG디스플레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저시력 아동과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박2일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에서 여름재활캠프를 개최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건설업계, 경기회복 기대감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3.2포인트 상승한 77.7을 기록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82.5)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7월은 혹서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건설기업의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4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지수 자체가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 침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사가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 100을 회복했고, 중견업체가 2.5포인트 오른 75.8을 나타내며 3개월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업체는 주택 중심의 경기부양책 혜택 영향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53.8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6.5포인트 상승한 90.2로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 업체는 2.0포인트 하락한 56.8을 기록했다. 서울 업체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지방 업체는 3개월 연속 감소하며 6개월만에 다시 50선 이하로 하락했다.

한편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6p 하락한 76.1을 기록했다.

/김두탁기자 kimdt@

<MVNO>

알뜰폰 '변신은 무죄'

소액결제 등 서비스 무장 편의성 높여

알뜰폰(MVNO)이 변신중이다. 음성통화와 데이터 뿐 아니라 부가서비스 등 편의성을 높여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음성과 데이터 등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에 주력했던 알뜰폰이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소액 결제가 가능해 졌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등 제품구매 시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요금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3개월 전인 지난 5월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만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CJ헬로비전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PC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지금은 알뜰폰업체가 제공하는 고객센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CJ헬로비전과 에넥스텔레콤이 각각 제공하는 '헬로모바일 앱'과 '홈 고객센터' 앱을 통해 월별 요금은 물론 실시간 요금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타 사업자와 제휴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SK텔링크는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와 손잡고 중학생용 '엠공폰', 고등학생용 '고3폰'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게임·소셜네트워크(SNS)·게임·인터넷서핑 등의 기능을 차단했다. 미니멀플러 단말기가 제공되는 엠공폰은 음성 40분, 문자 150건이 기본 제공량이다. 2년 약정시 월 기본료 1만7270원, 고3폰은 1년간 월 5500원의 기본료가 책정됐다.

/서승희기자 ssh814@

환전, 꼼꼼히 따져보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환전과 신용카드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휴가에 대비해 환전을 준비한다면 먼저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각 은행은 지난 6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 달러화가 환전 수수료율 측면에서 현지 통화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미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 통화는 대부분 4~12%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에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지정된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통화 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은행별 우수고객 할인이나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습니다.

신용카드로 원화결제하는 것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원화결제하면 실제 물품 가격에 약 3~5%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원화결제로 발생한 수수료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해외 원화결제시 최초 결제금액과 최종 청구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는 고객이 해외에서 원화결제한 대금을 달러로 환산해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합니다.

결국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한국GM, 썸머 페스티벌 한국GM이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차종 별로 최대 10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벌인다. /한국지엠 제공

금융가 사람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

경제도 주식도 '심리'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최경환 호(號)가 공식 출범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경환 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예견하게 해준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최경환 효과'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크다.

오승훈(사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은행과 유통, 증권 등 내수 경기 민감주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색깔은 '심리 회복'과 '소득 성장'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저성장의 해법으로 제시된 심리회복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통화정책과의 결합 효과"라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정책의 힘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효과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월 말 기준으로 50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335조원이며, 비은행예금기관은 93조원,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의 대출 규모는 76조원이다. 그동안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했던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비은행 여금취급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50% 정도 이동할 경우 512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경기부양의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유통, 증권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달 수익률을 보면 내수부양 기조에 힘입어 내수 서비스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김현정기자 mrl@

현대차 정기주주총회 모습 /연합뉴스

기업 중간배당 지난해와 비슷

국내 상장 기업들의 중간배당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중간배당을 한 상장기업 1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넘는 12곳(63.1%)이 지난해와 같은 배당액을 책정키로 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활용한 배당 확대 정책 등으로 배당 확대에 압박을 가했음에도 현금 배당이 작년보다 늘거나 준 기업은 각각 4개, 3개사에 불과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보통주, 우선주 한 주당 각각 500원의 현금 배당을 책정했다. 삼성전자의 중간배당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째 동일한 상태다.

KCC와 신흥, 한국쉘석유도 각각 1000원, 100원, 2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배당액을 결정했다.

두산(500원)과 KPX그린케미칼(50원), SK텔레콤(1000원), KPX케미칼(500원), 하나금융지주(150원) 역시 작년과 같은 액수의 배당을 책정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리드코프(50원), 경동제약(100원), 지음엔씨(100원) 등 3곳의 중간배당액이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에쓰오일은 기존 450원에서 150원으로 배당액을 줄였고 위스콘(100원→50원)과 대교(110원→100원) 등도 배당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농은 지난해 75원에서 100원으로 배당 수익률을 1.6% 확대했다.

이밖에도 레나투어(500원→600원), KPX홀딩스(550원→600원), 한국단자공업(100원→150원)은 작년보다 현금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증가액은 25~100원에 불과한 낮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며 1% 안팎의 배당 수익률을 보였다.

/박미리기자 alvo0203@

위례·부산 유망 분양 '총출동'

비수기 불구 7월 최대 실적 올릴지 관심

주간 분양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7월 분양 실적이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은 휴가철의 영향으로 7월보다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첫 주부터 위례, 부산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이 진행, 수요자들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첫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4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계획돼 있다.

서희건설은 5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서 '제천 서희스타힐스'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65~84㎡, 전체 399가구 규모다. 38번 국도, 82번지방도, 중앙고속도로 등의 도로망과 이마트, 롯데마트, 제천서울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화산초, 제천중·고교와 인접해 있다.

LH는 6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공급하는 '신평 LH천년나무'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74~84㎡, 총 900가구로 이뤄졌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과 당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6년 배고개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공영주택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상무 공영 메이루즈'를 1순위 공급한다. 전용면적 68~84㎡, 전체 496가구 규모다.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과 운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광주송정역(KTX), 광주공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8일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성남권역에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총 1137가구, 전용면적 98㎡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신사~위례선 경전철 위례중앙역, 중심상업시설 트랜짓몰 등을 이용 가능하다.

같은 날 월드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월드메르디앙 월더풀시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전용면적 59~84㎡, 총 828가구로 구성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가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시민공원, 부산백병원,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

이외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36블록 '양산신도시 이지더원'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도 이날 손님맞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

'심장 강하지만 하체는 허약', 포르쉐 마칸

■포르쉐 마칸 터보

모든 세그먼트에서 '스포츠카'를 생산한다'는 포르쉐의 철학은 콤팩트 SUV '마칸'을 탄생시켰다. 지난해 11월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한국에는 올해 5월 선보였다.

마칸(Macan)이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를 뜻한다. 개발명은 카이준(카이엔 주니어라는 뜻)이었는데 재규어 이름이 낫지 않나 싶다. 어떤 의미에서 호랑이라는 이름을, 그것도 인도네시아어로 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외관은 어느 정도 예견된 디자인이었다. 911과 박스터, 카이맨 등 스포츠카만 생산하다 카이엔과 파나메라를 내놓을 때는 다소 충격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예상하던 디자인 그대로 나왔다.

차체는 BMW X3, 아우디 SQ5, 메르세데스-벤츠 GLK,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크다. 차체 길이와 너비 모두 가장 크고, 높이는 섀시를 공유하는 아우디 SQ5와 같은 1624mm다.

대시보드는 911보다 파나메라와 카이엔에 가깝다.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한 스위치를 센터 콘솔에 나열한 방식이 특히 그렇다. 좁은 뒷좌석은 섀시를 공유하는 아우디 Q5/SQ5와 똑같다. 포르쉐 측에서는 "Q5 부품의 3분2를 바꿨다"고 강조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시승차는 마칸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터보 모델이다. 포르쉐 전체 모델 중 처음으로 적용된 V6 3.6ℓ 바이 터보(트윈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400마력을 낸다. 포르쉐 911 카레라S가 3.8ℓ 수평대향 자연흡기 엔진으로도 400마력을 내는 것에 비하면 과급기(터보)의 위력은 놀지 않다. 물론 최대토크는 56.1kg·m로 911 카레라S보다는 훨씬 강력하다. 데이터만큼이나 실제 가속성능은 빠르다. 게다가 강력한 배기음 덕에 한층 자극적이다.

문제는 이 강력한 엔진을 받쳐줄 하체가 기대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서스펜션은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등 3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해도 여전히 말랑말랑하다. 반면 아우디 SQ5의 경우 단단한 서스펜션 덕에 자로 잰 것 같은 핸들링을 보여준다. 같은 섀시를 써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가: 심장은 강력하지만, 허리가 부실하다. 콘셉트가 애매모호하다 ▲평점: ★★★

포르쉐는 마칸 터보의 성능을 0→100km/h 가속시간 4.8초에 최고시속 266km이라고 강조한다. 수치만 보면 단연 동급 최고다. 그러나 하체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성능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할 뿐이다.

포르쉐가 내건 가격표는 마칸 S가 8480만원, 마칸 터보는 1억740만원, 나중에 합류한 마칸 S 디젤은 8240만원이다. 그러나 이 가격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꼭 필요한 사양까지 '코리안 패키지'로 묶어놓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 코리안 패키지에는 프라이버시 글라스(70만원), 스토리지 패키지(40만원), 오토 디이밍 미러(60만원), 흡연 패키지(10만원), 리어 사이드 백(6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코리안 패키지 총 가격은 2890여만원이다. 이를 더하면 마칸 터보는 1억3630만원이다. 포르쉐를 선택하는 이들이 어런 옵션들을 빼지 않을 거라는 계산 아래 만든 사실상의 '2중 가격표'다.

먼저 나온 카이엔은 판매량의 대부분이 디젤 모델이다. 라인업 중 가격이 가장 쌀뿐더러 연비도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마칸의 판매구성도 마찬가지다. 마칸 S 디젤은 258마력, 59.1kg·m의 토크를 내는 데 비해 아우디 SQ5는 313마력, 66.3kg·m의 성능을 낸다. 코리안 패키지를 더한 마칸 S 디젤의 가격은 1억1100만원, 아우디 SQ5의 가격은 8690만원이다. SQ5와 비슷한 성능인 BMW X3 35d M스포츠패키지는 8810만원이다.

마칸 터보를 선택할 때의 딜레마는 엔진 성능을 따라주지 못하는 하체 구성에 있다. 경제성을 중시해 디젤을 고를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닌 아우디 SQ5와 BMW X3 35d가 버티고 있다.

진퇴양난. 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임의택기자 farrari@metroseoul.co.kr

AJ렌터카, 소아암재단에 '캐릭터카' 기증

AJ렌터카(사장 반채운)는 최근 강남본사에서 나눔 1호 라바 캐릭터카 전달식을 갖고 한국소아암재단에 차량을 기증했다. 이 차량은 인기캐릭터 '라바'를 전면에 적용한 것으 한국소아암재단 아이들이 이산병원과 센터, 쉼터를 왕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AJ렌터카는 제주지역에서 라바 캐릭터카 대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균기자 hoon@

나눔 1호 라바 캐릭터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AJ렌터카 박경원 전무(오른쪽부터), 한국소아암재단 한동숙 이사장, 홍승윤 이사. /AJ렌터카 제공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뉴모닝	570	640	650	850	
쉐보레	스파크		630	720	750	940
현대	아반떼HD	840	990	1,170		
현대	YF쏘나타	1,250	1,300	1,640	1,670	1,730
기아	포르테	870	940	1,060	1,120	1,180
삼성	뉴SM5	1,150	1,320	1,490	1,530	2,050
쉐보레	라세티	640	1,070	1,100		
쉐보레	뉴다이아스	450	490	540	550	720
현대	싼타페	1,590	1,730	1,830	2,110	2,900
기아	뉴스포티지	1,080	1,100	1,520	2,100	
쌍용	렉스턴	1,150	1,290	1,400	1,92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기아차 "모닝 구입시 5년치 자동차세 드려요"

고객 부담 줄인 '모닝 트리플 제로 프로그램' 마련

기아자동차가 8월 한 달 동안 경차 모닝을 구매한 개인 고객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은 '모닝 트리플 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금융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기아차는 이번 프로그램을 모닝의 고객들이 받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과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기아차는 8월 모닝 구매 고객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기 위해 모닝의 자동차세 5년 치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차량 유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유류비 지원 대신 40만원 상당(할인가 기준)의 삼성 인버터 제습기를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로 차량 출고월로부터 한 달 동안 현대 M계열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또는 하이패스 이용 금액 중 10만원에 대한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아차는 모닝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 구매 시 차량 전체 금액의 반만 내면 1년 후 나머지 반을 내는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금융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할부금이나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최저 금리 2.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이스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모닝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모닝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호기자

지금 노조가 파업할 때인가?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니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7·30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경제 살리기를 내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편 야당 사이에 예상을 깨고 여당이 압승했다. 결국 민심은 야당을 심판했고 여당에게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정치권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경기회복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마침 최경환 경제팀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되어 증권시장의 주가가 크게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우려됐던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시책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11개 지역에서 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파업을 벌였다. 이슈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규명과 각종규제완화·비정규직 확산금지·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무능정부로 규정하고 퇴진을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산업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업계에서도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31일 임협 1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여름휴가가 끝난 이달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 때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노 삼성은 지난달 22일과 25일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휴가가 끝나는 4일 이후 파업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물론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경제의 시점으로 보아 노조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사업장은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정수준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호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 노조파업은 자제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미덕'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이대로 좋은가

뉴스룸에서
김두탁
<경제·산업차장>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은 토목건축(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분야별 순위를 따로 발표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목건축 분야가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대표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로선 매년 정부 발표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토건분야에서 글로벌 시장개척에 공을 들인 삼성물산의 해외공사 실적이 크게 증가해 13조1208억원을 기록했다. 9년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1위를 지켜온 현대건설은 12조5666억원으로 2위를 기록하며 한단계 하락했다. 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에서는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토건분야 1·2위였던 두 대형 건설사의 자리가 올해 뒤바뀐 것이 업계의 주목을 끌었음은 자명하다.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에서 5위로 한단계 상승한 반면 해외 플랜트 사업은 전문으로 하고 있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선 11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 수년간 해외에서 저가에 수주한 여러 플랜트 사업들로 인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이 가장 큰 순위 하락 요인이다.

건설업계는 토건으로 대변되는 현행 건설사 순위매김 방식과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사업에서 한계를 느낀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사업 비중을 늘리는 실정이다. 몇몇 건설사는 국내사업 비중보다 해외사업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토건 위주의 건설사 순위 매김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수행능력과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경영평가 비중이 23~27%나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무슨 근거로 어떤 항목과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일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달라진 기준의 시공능력평가가 적용된 건설사의 순위 발표가 나올 지 주목된다.

포토프리즘 | 여름 밤을 락과 함께

지난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넓은 풀밭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며 뜨거운 여름밤을 즐기고 있다. 휴식을 생각하는 여름휴가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다. /[illegible]

트렌드 읽기와 트렌드 정보의 가치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과거 '트렌드'는 전문 용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들이 각자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범용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트렌드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시각마저도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트렌드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점도 다양해졌다. 그중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요청이 있는데 마치 점을 보러 온 사람처럼 다음 시즌에 유행할 트렌드 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기업들은 마치 수많은 길이 교차하는 곳에 혼자 놓인 아이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새로 난 길이 어딘지,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시각화된 정보가 기획자와 디자이너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의 의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트렌드 정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트렌드 정보는 혁신적인 미래를 그리거나 점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렌드 정보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유용성도 없는 것인가? 대답은 '아니다'다.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트렌드는 현재를 이해하고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데에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대 이전의 모바일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를 보면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청바지 차림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이 지배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이 변화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노키아 조차도 그 작은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불과 몇 년 만에 글로벌 넘버원의 자리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브랜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곧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새로움과 혁신에 목마른 이라면 트렌드 정보에 매몰되어선 안 될 것이다. 영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문학과 예술작품 감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추천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근거 있는 전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llegible](www.[illegible].co.kr) 대표

'교복 안감 바꿔치기'라니…

기자수첩
김학철
<생활경제부 기자>

교복 가격 안정화를 골자로 한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가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서 의무화 된다. 해당 학교는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 일괄적으로 물량을 납품토록해야 한다.

입찰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교복 안감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비영리 민간단체 학사모는 e학판학생복이 입찰용 샘플 제작에 유명 학생복 회사의 교복을 사들인 뒤 안감을 뜯어내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것으로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의 한 생산 공장에서 수거한 안감도 공개했다.

'e학판학생복'은 유명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주 70여명과 대형교복업체에 납품하던 생산 공장이 뭉쳐 만든 협동조합이다.

브랜드 교복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공장은 교복 브랜드 업체에서 계약해지된 곳"이라며 "남아있는 재고가 3억원 어치에 달해 대리점 운영으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형교복업체도 이월상품이나 남아있던 재고로 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입찰 참여 역시 대리점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동일한 교복이더라도 해가 바뀌면 이월상품이 된다. 유명브랜드 제품이어도 재고상품을 신상품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재고는 쌓이고, 판매가격과 수주량 등을 대리점에서 결정하다보니 점주의 입장에선 속이 쓰리기도 할 것이다.

결국 고품질의 교복을 싸게 제공해 교복 가격을 잡겠다는 주관구매의 취지가 '재고처리'의 한 경로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로 나온 책

에세이

행복한 수업 김준호 외 12명/크리스마스북스

인기 개그맨들이 전국 80개 학교에서 진행한 청소년 특강 중 13개의 강연을 모아 엮은 에세이다. 이들은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언니·오빠·형·누나의 마음으로 힘들었던 기억, 추억, 젊음 탕탕한 도전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 이를 통해 세상에는 꿈과 성공을 향한 도전 공식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소설

어제 너머의 연인 유이카와 게이/이룬사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행복을 꿈꾸는 루리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에 매진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모에. 두 주인공을 통해 20~30대 젊은 여성의 사랑과 일, 사회적 갈등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기성세대의 세속적이고 도식화된 삶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마이 네임 이즈 메모리 앤 브래셰어스/이레

사랑하는 여인의 기억을 붙잡고 삶과 죽음을 수없이 반복하는 남자와,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가 이어질듯 엇갈리고 엇갈리면서도 이끌리는 천 년의 사랑 이야기다. 두 주인공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갖고 있는 힘과 진정한 용기, 현실이 지배하는 삶의 진리를 일깨워 준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심리 묘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인문

고전문화 읽은 척 매뉴얼 김윤식/멘토르출판사

책은 별로 읽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만 했고 알아야 했던 재미없는 고전의 진정한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의 만지일보 편집장으로 활동하는 저자는 직설적이면서도 신랄한 문체로 이유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전 13권을 쉬운 디르게 파헤치고 있다.

역사·문화

한국사 명화관 김정락/이론로

저자는 668년 고구려 멸망 과정을 그린 '평양성'에서 1981년 부림사건을 다룬 '변호인'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 20편을 엮어서 영화적 서사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설명한다. 특히 책에서는 한국사의 주요 맥락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의 재조명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2 김학범/김영사

대곳적 신비를 간직한 채 세월의 아픔이 묻어있는 명승은 담백한 자연유산 순례기다. 문화재청에 공식 선정된 가장 아름다운 절경 55곳을 직접 답사한 저자의 노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명승을 만날 수 있다.

경제경영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부자 유순호/한나무숲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베이비 푸어 등 '푸어'로 대변되는 세가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100세 시대, 경제적으로 조금은 똑똑해져야 한다. 책은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현실감있게 소개하며 실전에 유용한 경제교육을 시도한다.

요리

아이스크림·젤라또·샤베트 하나세 쿠미코/스트로베리

책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아이스크림의 모든 레시피를 모아 담았다. 책에 소개된 메뉴들은 저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다면 반드시 쇼케이스에 넣고 싶은 것들로 구성했다. 새로운 맛에 대한 아이디어로 기득한 레시피로 여름철 집에서 시원하게 맛 볼 아이스크림을 소개한다.

자기계발

사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소통 선은희/좋은땅

소통에 답답함을 느껴아에 입을 다물고 살지는 않은가? 이 책은 '개인의 감성소통', '리더의 감성소통', '조직의 감성소통' 등 단계별로 나눠 보다 폭 넓은 소통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 실전 위주의 내용을 다룬 이 책은 누구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나에게는 칼이 필요하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나를 지킨 영혼·정신 필요

지금까지 헛살아온 40대 가장 '박정달'은 어린 시절부터 연약해 팔심 폭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폭력은 그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과도를 품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는 칼에 대한 광기와 집착을 만들어냈다.

칼에 대한 애착으로 대학 때는 '칼잽'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조직의 경쟁에서 뒤떨어졌고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의 칼로 무장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영혼이 담기는 칼 '신검'을 만들기 위한 대장간을 세운다.

신검을 부르는 한 남자의 광기와 집착, 박정달의 이야기를 담은 '칼'은 1982년 이외수가 죽기 전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성한 작품이다. 당시의 시대심을 반영하듯 지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정신을 무장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또 비틀어진 세상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칼 /이외수/해냄

하지만 저자의 얘기는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의도 힘이 있어야 승리하고 힘 자체가 정의처럼 보이는 소설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 오히려 더 극악해진 현실 앞에 칼잽 박정달이 꿈꾸던 칼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존재가 된다.

즉 의식과 영혼이 여전히 가난한 이 시대에 신검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침략의 칼이 아닌 보호의 칼, 목을 치는 칼이 아닌 포박을 풀어주는 칼,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이 아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칼이 필요한 것이다.

"가난한 자도 일어서고 힘없는 자도 일어서리라. 억울한 자들도 한을 풀리라. 그대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을 천상에서 길이길이 누리게 되리로라"라며 신검을 완성한 박정달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도심 속 휴식

세상에서 가장 바쁜 도시 뉴욕의 빽빽한 도심 숲 속 브라이언트 파크는 여유롭다. 잔디밭에 드러누워 선텐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업무 중 짬을 내 샌드위치 한 조각 먹으러 나온 것이어도 좋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면 충분하다. - 로사의 뉴욕 훔쳐보기 (김로사/레스컴) 中- /정아연 기자

아침을 여는 따뜻한 문자메시지가 책으로

화제의 책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일은/드림북스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의 천축산에 있는 불영사의 주지 일운스님이 '마음'을 주제로 한 따뜻한 책 한 권을 냈다. 책 발간의 시작은 이렇다. 스님은 3년 전 염불만일수행결사회를 만들어 하루 한 번 마음을 제목으로 한 행복 편지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는 소문의 소문을 거쳐, 현재 2000여 명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행복한 마음 메시지를 받고 있다. 짧지만 아침을 행복하게 여는 이 글들이 모여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가 나오게 됐다.

책은 총 4개의 마당으로 나뉘어 있다. ▲흔들리는 믿음에게 ▲상처받은 마음에게 ▲지금 이기 시해여게 ▲나를 바꿀 실천에게 등 현실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힐링의 메시지를 시나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다.

특히 하나하나의 글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무겁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혹,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라는 스님의 배려가 묻어 있다. 이와 함께 글 중간중간에 삽입돼 있는 50여 컷의 일러스트도 독자로 하여금 한결 가볍게 책을 읽게 한다.

스님은 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짐을 싣고 살아 간다"라며 현재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또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야말로 스님이 제시한 해법이자 치유법이다.

휴가철, 마음을 도닥일 힐링을 찾는다면 일운 스님이 전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김학철기자 kimc1104@

비만,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

혼자 관리 못하면 전문의 도움 구해야
지방흡수억제제·포만감증가제 복용을

무더위가 시작되고 열대야가 찾아오면서 한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줄 '치맥'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또 더운 밤을 즐겁게 해주는 야식이 사람들의 손과 입을 바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의 야식으로 찾아오는 비만은 생각보다 강적이다.

◆검증된 다이어트법 효과적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도 시작됐다.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루 세 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고 야식을 피해야 한다. 평소 아침을 거르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불쑥 찾아드는 공복감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식을 하게 되고 밤에는 야식을 찾게 된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을 조금 늦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야식은 삶은 옥수수나 고구마, 곤약처럼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본인의 의지로는 야식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거나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정밀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본인의 몸 상태에 적합한 비만 치료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비만 치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방 함량이 높은 야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지방흡수억제제 복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잦은 공복감으로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포만감 증가를 유도해 식사량 감소를 돕는 '알긴산' 성분의 포만감증가제 복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성원 이젠성형외과 원장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비만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이어트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소비자 위해사례 매년 증가

게임·장난감·교육자재 등 전년比 34%↑
식품·가정 내·10살 미만 안전사고 많아

소비자가 각종 제품이나 시설·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가 10명 중 3명을 넘었으며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게임·미술용품·교육기자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34%에 달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만4724건이었던 것이 2012년 6만1498건, 2013년에는 6만5405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소비자신고·언론 및 해외정보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축적된 정보를 분석·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1년간 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6만5405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1만2016건, 18.4%), 위해발생 장소로는 '가정'(3만7231건, 56.9%), 연령별로는 '10세 미만'(2만1971건, 33.6%)에서 가장 많은 위해가 발생했다.

위해다발 품목에는 식료품 및 기호품(1만2016건, 18.4%)에서 이물·부패·변질·식중독 등이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계단이나 유리와 같은 구조물·건축물·제조용 자재(1만655건, 16.3%), '차량 및 승용물'(7680건, 11.7%), '가구 및 가구 설비'(7531건, 11.5%) 등에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식료품 및 기호품'은 전년보다 19.6%(1966건), '차량 및 승용물'은 20.3%(1294건)나 증가했다.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3만7231건, 56.9%)으로 침실·방(11.8%), 거실(9.6%), 주방(5.1%), 화장실과 욕실(4.2%) 등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위해사례가 2만1971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7909건, 12.1%), 40대(6691건, 10.2%), 50대(5774건, 8.8%), 20대(5299건, 8.1%)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사례는 총 2836건이 접수됐는데 자동차(1034건, 36.5%)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192건, 6.8%), 선풍기(106건, 3.7%), 세탁기(101건, 3.6%) 순이었다. /[illegible] @metroseoul.co.kr

강강술래, 8월 '힐링 스파여행' 이벤트

리솜리조트 천천향 이용권 무료증정
바캉스세트·가정간편식 최대 4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고객들의 심신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리솜리조트와 손잡고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www.sullai.com)는 8월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총 50명을 추첨해 충남 덕산의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스파 온천사우나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이 업체는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바이브하우 육류세트와 가정간편식도 오는 10일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정성플러스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플러스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8000원에 판매한다.

왕양념갈비(2대 560g)와 술래양념(8대 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된 어메이징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세트메뉴 모두 택송비(3000원)를 추가하면 휴가지까지 택배로 보내준다. (도서산간 및 섬 별도 문의) /정영일기자

롯데리아, 8월 한정 '화끈한' 시리즈

세트 구매 시 소프트콘 무료 쿠폰 증정

롯데리아가 8월 한 달간 이열치열의 '화끈한' 한정판 메뉴를 선보인다. 이름하여 '화끈한 버거'와 '화끈한 감자버거'다.

오는 31일까지 150만개 한정 판매되는 화끈한 버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매운 맛이 일품인 제품이다. 멕시코 고추인 할라피뇨 소스를 쇠고기 패티에 곁들여 말 그대로 '화끈한' 맛을 구현했다.

화끈한 버거는 단품 3300원, 세트는 5300원에 판매된다. 화끈한 감자버거의 가격은 단품 3700원, 세트 5700원이며 두 제품 모두 세트 구매 때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화끈한 버거는 팩으로도 판매된다. '화끈한팩'은 화끈한 버거와 불고기 버거, 양념감자, 치즈스틱, 콜라 2잔이 포함되며 가격은 9900원이다. '화끈한 감자팩'은 화끈한 감자버거가 포함되며 1만100원에 판매된다. /정영일기자 jeong@

'불 없이 만드는' 디저트 레시피

기존 제품 활용… 멋과 맛을 동시에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달콤한 디저트나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고 싶지만 가스 불 앞에 서 있는 것 조차 고역이다.

이런 가운데 식음료 업계에서는 자사 제품을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 레시피를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은 올 여름 '프로즌 푸딩'(사진왼쪽)이란 이름으로 자사의 '스윗푸딩'을 얼려먹으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제품 2개와 제철과일인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그릇에 담아 섞는다. 블루베리 잼이 있다면 추가한다. 잘 섞은 후 2개의 스윗푸딩 용기에 다시 나눠 담은 후 용기 윗부분을 랩으로 감싸 뚜껑을 닫는다. 냉동실에서 4시간 동안 얼린 후 먹기 전 블루베리 및 잎은 올려 장식하면 완성된다.

매일유업 상하치즈가 최근 선보인 '찍먹는 까망베르 치즈'(오른쪽)를 이용해 바게트 위에 찍어 얹은 후 치즈 위에 체리, 산딸기, 블루베리 등 원하는 과일을 올리면 손에 이것저것 묻히지 않고도 1분 만에 멋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음식이 완성된다.

국민간식 '조코파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불 없이 간단한 조리만 더해도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잘게 자른 조코파이와 우유를 믹서에 넣고 입맛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넣어 함께 갈아주면 간단하게 완성된다. /정영일기자

아이와 함께 더위 날리고… 추억 쌓고…

'오감만족' 이색 체험 프로그램 다채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주일여가 지났다.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과 방학기간을 유익하게 보내려고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저렴하게 더위도 날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장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 열기 물놀이로 날려버리자!

여름엔 역시 물놀이가 제격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넥슨의 온라인 게임 '버블파이터'의 워터 서바이벌경기가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물총 대전으로 오는 23일까지 서울랜드에서 열린다. 대회 필수품인 '너프 수퍼소커'는 글로벌 완구 기업 해즈브로의 스포츠 토이브랜드 너프(NERF) 시리즈의 워터 슈팅 완구로 버블파이터의 게임 아이템과 동일하게 디자인됐다. 참가자들은 블루, 레드팀으로 나뉘어 상대팀 머리에 부착된 타깃을 맞춰 떨어뜨리면 승리하게 된다.

◆이색 야외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오감을 만족시켜 줄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많다.

만화채널 투니버스는 11월 2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내 잔디광장에서 '투니페스티벌'을 연다. '마이리틀 포니'를 비롯해 '안녕 자두야', '명탐정 코난', '개구리중사 케로로'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며 미션게임, 병아리놀이, 캐릭터 포토존 등 총 11개의 놀이시설을 운영한다.

에버랜드는 오는 24일까지 이색 동물 체험 프로그램 '로스트 밸리 야간 도보탐험'을 진행한다. 낮에는 수륙양용차로 이동하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를 야간시간을 이용, 전문 탐험가이드와 함께 코끼리, 코뿔소, 스컹크, 사막여우 등 13종 100여 마리의 동물을 가까이서 관람하고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예약은 필수.

서울랜드 '버블파이터 워터 서바이벌 챔피언십' 경기 모습

트랜스포머 30주년 기념 오리지널 아트워크전

◆아이도 아빠도 즐거운 로봇 체험전

아이의 엄마·아빠가 함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사도 있다.

글로벌 완구 기업 해즈브로코리아는 트랜스포머 탄생 30주년을 맞아 10월 10일까지 세계 최초로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아트워크 전시회'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트랜스포머의 탄생과 역사, 디자인의 변천 과정 등 오리지널 내부 제작 자료와 각종 국내 미공개 자료들이 소개된다.

영실업은 또봇과 쥬쥬를 직접 만나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 체험전'을 오는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연다. 또봇의 배경인 또봇 시티와 쥬쥬가 살고 있는 팔레트마성을 재현한 공간에서 공던지기, 장애물 통과, 격파왕 도전 등의 활동을 완수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도심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조성됐다. 여의도에 위치한 컨템포러리 스타일 쇼핑몰 IFC몰은 오는 17일까지 '도심 속 상상놀이터'를 운영한다. 이 곳은 아이들이 대형 블록을 자유자재로 쌓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성일기자 [illegible]

호텔에서 즐기는 '맛있는 주말'

특급호텔마다 다양한 '특선 요리' 선택

특급호텔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주말 특선'을 마련했다.

먼저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주말과 공휴일 일식당 겐지에서 다양한 일식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겐지 일식 뷔페'를 준비했다. 신선한 생선회와 초밥, 튀김 등이 조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 색다른 재미가 있다.

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나인스 게이트 그릴은 주말 메뉴인 '위켄드 플래터' 메뉴를 마련했다. 한 접시에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를 푸짐하게 담아 가족이나 연인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츠칼튼 서울의 올데이 다이닝 더 가든에서는 건강을 생각한 오가닉&마크로비오틱 메뉴로 구성된 '선데이 브런치'를, 롯데호텔서울 일식당 모모야마에서는 '주말 오모앗카리 스시'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정통 그릴 레스토랑 'JW's 그릴'은 매주 일요일에 신선한 해산물과 최상급 육류를 그릴에서 즉석으로 조리해주는 브런치가 있다. 더 플라자는 7가지 코스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특선 메뉴를 준비했다.

그랜드 힐튼 서울 에이트리움 카페의 '선데이 브런치'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페스타 비스트로 앤 바는 매주 토, 일요일 뷔페 스타일의 세미 뷔페 브런치를 준비했다.

아울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주말마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모모카페에서 '위켄드 부스터 브런치 뷔페'를 통해 새로운 맛을 전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누비보따리', '기념품 공모전'서 대상

통영누비 생활용품에 응용

대한민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누비보따리'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제17회 대한민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심사 결과 '누비보따리(술리피)'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 특성화 분야와 지역 특성화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은 통영 12공방에서 겹옷을 만들어 입을 만큼 견고하고 섬세한 통영누비를 생활용품에 응용한 누비보따리로 결정됐다.

또 한국특성화 분야 금상에는 입김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전통창호 모양의 '한국 전통창호 전자램프'가 선정됐고 경복궁 단청무늬와 자경전 꽃담의 국화무늬 등을 담은 엽서인 '서울의 아름다움을 찾아서'가 지역특성화 분야 금상을 차지했다.

관광공사는 향후 선정된 작품에 대한 마케팅과 판로 구축을 지원하고 상품화 특강,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올 여름 시간여행 어때요?

더페이지 갤러리, 근·현대 미술 체험 전시 개최

근·현대 미술가들의 열정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더페이지 갤러리(대표 성지은)는 서울숲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더페이지 갤러리에서 근·현대 미술 체험 전시 '노 모어 아트(NO MORE ART)'를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미술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살았던 방(공간), 그리고 그들이 거닐었던 거리를 재현함으로써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예술가들의 삶 속으로의 여행을 가능케 했다.

특히 근대미술 섹션에서는 이중섭, 박수근, 구본웅, 나혜석, 이인성 다섯 명의 작가가 실제 살았던 공간이 재구성됐다. 또 1950년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비다방과 국제시장이 들어섰으며 그 시대의 복장을 한 퍼포머들이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현대미술 섹션에서도 작가 각각의 공간이 마련돼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로의 여행을 안내한다.

여기서는 ▲록넥서스로의 초대(백남준) ▲여백과 추상표현주의(샘 프란시스) ▲새로운 종교(데미안 허스트) ▲게니본의 위대한 그림 사용법(리처드 해밀턴) ▲거울을 다시 쓴다(워홀) 등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피터 줌터, 김중만, 변종곤 등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세상에 하나뿐인 퍼포먼스…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좋으다 예술 페스티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김원기)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설악 쏘라노에서 서울예대 전문 교수진과 함께 '좋으다 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세상에 하나뿐인 퍼포먼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야외 무대에서는 마당극에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한 공연인 '탈(脫)'과 사물놀이 한곳에 LED가 혼용된 '연희', 그리고 비디오 퍼포먼스인 '고도(Godot)'가 펼쳐진다.

사물놀이 한곳에 LED가 혼용된 공연 '연희'의 한 장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또 센터몬 로비에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4D 체험관이 운영되며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하고 가상 세계를 여행하는 '노른 자이라'도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황재용기자

"강성재처럼 쓰레기냐고요?"

아침드라마 1위 '나만의 당신' 악역 **송재희**

배우 송재희(34)는 MBC '해를 품은 달'(2012)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작품 속 허염처럼 선한 인상이 강한 배우였다. SBS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 전까지는. 지난 18일 종영된 이 드라마에서 폭행·은폐·납치·살인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는 강성재를 연기했다. '쓰레기'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비호감 강성재 영광입니다

그는 강성재의 악행에 공감했다. "비현실적인 캐릭터는 아니죠. '내 안에 이렇게 악한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를 이해했어요. 대본을 보면서 악행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죠. 실제 재벌 사모님이 청부살인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성재의 행동도 충분히 있을 법하죠.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쓰레기'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송재희가 강성재처럼 쓰레기야?'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웃음)"

번듯한 외모 때문에 선비·실장 대표 역할을 주로 했고 '나만의 당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 이미지를 깨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그러나 변신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을 뿐이죠.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좋은 배우가 되는 것과 오래가기 위한 것. 선택보다는 어떤 역할이라도 잘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은 최고 시청률 16.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아침드라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는 연기에 대해 아쉬워했다.

"역할은 좋았어요. 그런데 연기를 더 잘하지 못해 아쉬웠죠. 배우는 누군가에게 선택 받아야 하는 직업이고 저는 톱스타도 아니에요. 이처럼 살아남기 힘든 분야에서 저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강성재를 변명할 수 있는 악역으로 만들어 준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검도 포기… 인생 쉽게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 검도 선수였다. "부상을 당해 그만 뒀어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다쳤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했죠. 미래를 쉽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잘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고 TV에 얼굴이 나오면 좋으니까 연예인을 할 거라고 했죠."

1999년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입학 연정 때 거만했어요. 서프라 순풍산부인과'에서 송혜교가 다니는 회사 사원으로 단역을 맡고 있었거든요. 동네 포장마차 주인에게까지 소문을 냈고 싸인도 해드렸죠. 그런데 무명 시절 때 가장 원망했던 사람은 저를 뽑아줬던 교수님이에요. '왜 입학시켜서 밥값도 못하는 인생을 만들었나요?'라고 미워했죠."

2004년 공현주와 함께 한 광고로 데뷔했다. 그러나 2011년 SBS 배우 선발 프로그램인 '기적의 오디션' 예 참가해 악역 연기를 하고 탈락했다. "김갑수 선배가 '당신이 한 건 연기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어요. 상처 받았지만 지금은 이해 가는 말이죠. 연기자보다는 이슈가 되고 싶었어요."

"제 매력은 '끈질김, 열정, 생존' 김수현·소지섭보고 많이 배워"

MBC '로드넘버원'(2010) '해를 품은 달'에선 소지섭 김수현과 함께 출연했다. 그는 "많은 걸 배웠다"며 "소지섭은 항상 대본을 보며 집중하고 있다. '로드넘버원' 첫 방송 날 소지섭에게 '2년 전 우리 결과물이 오늘 나온다'고 문자가 왔다. 별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고 '그냥 저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에 대해선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준비된 연기자라는 걸 느꼈다"고 칭찬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끈질김, 열정, 생존"이라고 말했다. "강제규 필름에 오래 있던 이성훈 PD가 영화 '쉬리'를 끝내고 대학 동기로 입학을 했어요. 10살 많은 동기였죠. 당시 '살아 남아라'고 조언했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활동하고 있어요."

/정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정한희(각양드래곤)(웹) 디자인/[illegible]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8월18일 {월} 밤11시 tvN 첫방송

산이·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아이유 하이포

가요계 콜라보 강세 여전

'썸' '봄 사랑 벚꽃 말고' '한여름밤의 꿀' 신선한 조합으로 음원차트 '올킬' 행진

올 상반기 소유와 정기고의 콜라보레이션 곡 '썸'이 인기를 얻으며 가요계에 이같은 조합이 강세다.

서로 다른 느낌의 음악성을 갖추고 있는 가수들의 콜라보레이션은 항상 흥미로운 소재였다. 비슷한 장르를 추구했던 둘 혹은 그 이상의 가수가 만나서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것과 다른 장르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이 한 곡에서 만나는 것 모두 신선하고 재밌는 조합이었다. 덕분에 콜라보레이션의 인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유와 정기고의 '썸'은 3월, 아이유·하이포의 '봄 사랑 벚꽃 말고'는 5월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이어 래퍼 산이와 그룹 애프터스쿨의 레이나가 부른 '한여름밤의 꿀'이 7월 월간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2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발매된 산이와 레이나의 프로젝트 싱글 '한여름밤의 꿀'이 7월 월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18위에서 17계단 상승한 수치다.

'한여름밤의 꿀'은 여름날의 풋풋한 연애 이야기를 담은 러브송이다. 두 남녀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꿀과 같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다는 가사와 따뜻한 감성의 멜로디가 매력적이라는 평이다.

한편 산이는 4일 힙합그룹 트로이 멤버 범키와 함께 한 신곡 '바디 랭귀지'를 발표하고 연타석 흥행을 노린다. 신곡 '바디 랭귀지'는 사랑하는 남녀가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19금 가사들이 담겨 있는 곡으로 공개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상훈기자 ysw@

1세대 아이돌 예능서 맹활약

9년 만에 돌아온 god 박준형 입담 여전 지상파·케이블 넘나들며 여심 사냥 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1세대 아이돌이 최근 예능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390회 '멤버아특집'은 최근 재결합한 god의 박준형·데니안·손호영이 출연해 '예능 타임머신'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무한도전에 출연한 god 멤버들 중 가장 많은 웃음을 터뜨린 사람은 큰 공백 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온 데니안·손호영이 아닌 약 9년 만에 TV에 얼굴을 비춘 박준형이었다. 이날 박준형은 유재석의 갑작스러운 출연 요청에도 "TV에 안 나간 지 백년도 넘었다"며 방송 출연에 대한 갈증을 나타냈다. 지난 2005년 놀러와 출연을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던 박준형은 10년 전과 변함없는 엉뚱함으로 녹슬지 않은 예능감을 뽐냈다.

지난해 방영한 QTV '20세기 미소년'은 H.O.T의 문희준·토니안, 젝스키스 은지원, god 데니안, NRG 천명훈 등 1세대 아이돌은 한 데 모으며 큰 인기를 모았다. 한 때는 라이벌이었던 이들은 '핫젝갓알지'라는 이름으로 뭉쳐 NRG의 데뷔곡 '할 수 있어'를 재해석해 부르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핫젝갓알지 멤버들은 '20세기 소년'은 물론 MBC '세바퀴', KBS 2 '해피투게더',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하며 '원조 예능돌'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토니안을 제외한 핫젝갓알지 4인방은 온스타일 'WISH(Where Is my Super Hero)'에 출연해 여심 잡기에 나섰다. 'WISH'는 핫젝갓알지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6만9950명에게 '좋아요'를 받으면 콘서트를 열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핫젝갓알지 멤버들이 현실에 지친 20~30대 여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히어로가 되기 위한 고군분투기를 담고 있다.

/김재원기자 jarakim@metroseoul.co.kr

온스타일 'WISH' 방송화면 갈무리

MBC '무한도전' 방송화면 갈무리 /MBC

엑소 중국 시안 콘서트 성료

변함없는 인기…1만여명 관객 환호

인기그룹 엑소(사진)가 서울, 홍콩, 중국 우한·충칭·청두, 대만 타이베이, 창사에 이어 시안에서도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3일 소속사에 따르면 엑소는 지난 2일 오후 8시 중국 시안 산시성체육장에서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 - 더 로스트 플래닛 - 인 시안'을 열고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약 1만 명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성을 이끌어냈다.

엑소는 이 날 데뷔곡 '마마'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으며 '늑대와 미녀' '으르렁' '중독' 등 히트곡 무대를 비롯해 앨범 수록곡 무대, 멤버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개별 무대까지 2시간여 동안 총 30곡의 다채로운 무대로 1만 관객과 호흡했다.

이외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공연 내내 엑소를 상징하는 은빛 야광봉을 흔들며 엑소를 연호했다.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 노래도 완벽하게 합창했다.

엑소는 오는 23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투어를 한다.

/정상훈기자

'원조 한류' 보아 일본 정규 8집 발표

4년 6개월 만에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

원조 한류 스타 가수 보아(사진)가 4년 7개월만에 일본에서 정규 8집을 발표한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오는 9월 3일 일본에서 8집 '후즈 백?'을 발표한다. 보아가 일본에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것은 지난 2010년 2월 7집 '아이덴티티'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14곡으로 구성된 보아의 새 음반은 신곡 '퍼스트 타임'과 함께 그간 큰 사랑을 얻었던 싱글 곡들로 채워졌다. '곧 마이 네임' '메시지' '투 위켄드' '샤우트 잇 아웃' '마일스톤' '아이 씨 미' '클로즈 투 미' '베이비 유' '네일 오브 포프' 등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발표한 히트곡들도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싱글 타이틀곡 '메시유메자이싱'과 수록곡 '편도' 수록됐다.

한편 보아는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4년 반 만에 일본에서 전국 콘서트 투어를 갖는다. 오는 9월6일과 7일 일본 도쿄 NHK홀을 시작으로 14일 아이치, 20일 오사카, 23일 후쿠오카에서 펼쳐진다.

/정상훈기자

남자들의 비밀스런 이야기 '나는 남자다'

유재석 4년 만에 새 예능 출연 관심
"권오중 솔직발언 첫 방송 70% 편집"

KBS2 새 예능프로그램 '나는 남자다' 5명의 진행자(유재석 임원희 권오중 장동민 허경환)가 남자를 정의했다.

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나는 남자다' 기자 간담회에서 유재석은 "평소 남자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며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경환도 "솔직히 파일럿과 정규 1회 녹화를 하면서 스스로 남자인 걸 잊고 지낸 걸 알게 됐다"며 "남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고 진정한 남자로 변해가는 걸 보여주겠다"고 비슷한 생각을 전했다.

임원희와 권오중은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를 정의 내렸다.

임원희는 예날 "남자는 애다. 나이가 많든 적든 10대 같고 동심 속에 있다"며 "피터팬 증후군(어른아이 같은 심리를 가진 성인)을 앓고 있는 존재"라고 했다.

권오중은 "나는 남자'라고 짧게 말했고 이에 유재석은 "죄송하다. 첫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권오중의 발언 70%는 편집된다"고 거듭 사과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권오중은 "순수하게 말하는 거다. 내가 야자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내 발언이 100% 방송에 나오면 '나는 남자다' 시청률은 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동민은 '나는 남자다'로 남성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는 강하고 가부장적"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실제는 다르다. 누구보다도 여성스럽고 자상할 수도 있다. 방송을 통해 '이것이 남자'라는 걸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나는 남자다'는 유재석이 4년 만에 새로 시작하는 토크쇼로 방영 전부터 주목받았다. 4월 파일럿 방송 후 정규 편성 됐으며 20회 시즌제로 시청자를 만난다. 방청객은 모두 남성이며 이들은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 중이지만 요즘 심야 예능은 시청률 두 자리를

KBS2 '나는 남자다' /KBS 제공

내는 게 힘들다"며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지만 시청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소통하는 데에 집중해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KBS2 새 예능프로그램 '나는 남자다'는 오는 8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재형 4년 만에 영화음악 감독

'두근두근 내 인생' 서정적 감성 담아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사진)이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으로 4년 만에 영화음악 감독으로 변신한다.

정재형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뮤지션이다. 그 동안 '중독' '오로라 공주' 'Mr. 로빈 꼬시기' '쩨쩨한 로맨스' 등의 작품을 맡아 등장인물의 심리와 영화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왔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피아노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을 담은 음악을 작곡했다. 정재형은 "시나리오가 정말 재밌었다.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아이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밝은 느낌이었다. 동화적인 것들을 회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참여 계기를 전했다.

이재용 감독은 "정재형 음악감독은 자신 나름의 음악 세계가 있다. 그의 아름다운 피아노곡에 담긴 서정적인 감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예상대로 영화 속 감성과도 잘 어울렸다"고 만족해 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열일곱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이 신체 나이가 된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다음달 3일 개봉한다.

/[illegible]기자

'명량' 하루에 122만 '연일 신기록'

일일 최다 관객수 기록…400만명 돌파 눈앞

스크린으로 재탄생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전쟁을 만나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연일 흥행 신기록을 수립하며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명량'은 개봉 첫 날 68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86만), 최단 기간 100만 돌파(2일), 최단 기간 200만 돌파(3일) 기록까지 연이어 갈아치웠다.

개봉 4일 째인 지난 2일에는 하루 동안 122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트랜스포머 3'가 지난 2011년 7월2일 토요일 하루 동안 95만 관객을 모은 것을 경신한 역대 일일 최다 관객수 신기록이다. 하루 동안 100만 이상의 관객을 기록하는 것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만큼 '명량'의 신기록은 의미가 크다.

누적 관객수에서도 개봉 4일 만에 356만을 넘어서며 역대 개봉작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봉 6일째인 3일 현재도 73.6%의 높은 예매율을 기록 중이다. 개봉 첫 주에 4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신기록을 세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과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젊은 관객들은 물론 중장년층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이 흥행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엄대아를 따라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도 '명량'의 흥행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편 '군도: 민란의 시대'는 '명량'의 강세로 인해 흥행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 개봉 10일째인 지난 1일 410만 관객을 넘어섰으며 2일까지는 430만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드래곤 길들이기2'는 191만 관객이 들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MBC '무한도전'·'개과천선' 이달의 PD상

MBC 간판 예능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지난 6월 종영한 수목드라마 '개과천선' 박재범 PD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한국PD연합회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이달의 PD상' TV 예능 드라마 5월(171회) 수상작인 '무한도전'과 6월(172회) 수상작 '개과천선'의 시상식을 가졌다.

홍진표 한국PD연합회장은 "'무한도전'은 선택 2014 편에서 다양한 공약과 선거운동 토론을 통해 현실 선거를 능가하는 재미와 감동을 보여줬다"며 "투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사전 선거 투표율을 올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과천선'역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보수과 갈등을 치열하게 표현했다"며 "현실의 가장 뜨겁고 예민한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정의가 능력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선택임을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홍진표 한국PD연합회 회장과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 /MBC

/[illegible]기자 [illegible]

잘 던진 류현진 시즌 13승은 다음에…

고속 슬라이더 장착 반면 무뎌진 체인지업
시즌 16번째 퀄리티 스타트 성공 입지 탄탄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시즌 13승 사냥에 실패했다. 그러나 LA다저스는 컵스와 연장 12회에서 헨리 라미레스의 홈런으로 5-2 승리를 거뒀다.

류현진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시즌 21번째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9피안타(1피홈런)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2자책)했다. 삼진은 6개를 솎아냈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7회말 타석 때 대타 아시엘 푸이그와 교체됐고 다저스가 7회말 득점에 실패하면서 류현진의 개인 4연승과 시즌 13승 도전은 물거품이 됐다.

류현진은 비록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컵스를 상대로 시즌 16번째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에 성공했다. 이울러 일본인 투수 와다 쓰요시(33)와의 한 일 선발투수 자존심 대결에서도 우세를 거뒀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바로 고속 슬라이더 신무기를 장착한 반면 체인지업은 다소 무뎌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류현진은 1회초 2사 2루에서 우타자 스탈린 카스트로에게 선취 타점을 내준 중전 안타는 바깥쪽의 시속 134㎞ 체인지업에서 나왔다. 2-1로 앞선 7회초 2사 1루에서 오른쪽 타석에 선 스위치히터 아리스멘디 알칸타라에게 맞은 통한의 동점 2루타 역시 똑같은 속도, 비슷한 코스의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허용했다.

잘 알려진 대로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살짝 휘면서 떨어져 헛스윙을 유도하는 '우타자 상대의 필살기'로 꼽히는 구종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연달아 오른쪽 타석에 선 타자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적시타로 연결됐다.

새로운 구종인 고속 슬라이더를 예리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체인지업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알려진대로 류현진은 올해 4월 어깨 통증으로 약 한 달 동안 부상자명단에 있을 때 릭 허니컷 투수코치에게 커터에 버금가는 예리한 고속 슬라이더를 배웠다.

손재주가 좋아 새 구종을 빠르게 습득한 류현진은 전반기 막판부터 이 공의 비중을 늘여 철저한 분석을 자신하고 타석에 선 상대를 당황케 했다. 그러나 그만큼 체인지업의 위력이 다소 감소했다. 슬라이더의 구속을 키우기 위해 팔의 각도를 높였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해 체인지업이 무뎌진 류현진이 어떤 대책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다저스는 연장 12회말 2사 1, 2루에서 헨리 라미레스가 끝내기 쓰리런 홈런을 터뜨려 컵스를 5-2로 꺾었다. 전날 2-8 패배를 설욕한 다저스는 이날 뉴욕 메츠에 2-4로 패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격차를 3경기반으로 벌렸다.

/유선준기자 yoo@metroseoul.co.kr

추신수 연속 안타 행진 스톱
상대 수비 실책 출루 시즌 타율 0.237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사진)가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첫 타석에서 상대 수비 실책으로 출루했지만 나머지 타석에서 모두 삼진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4타수 1안타로 2경기째 이어나간 연속 안타 행진도 이날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0.240에서 0.237로 하락했다.

텍사스는 9회초 2사 1, 2루로 동점 기회를 맞았지만 마지막 타자 넨 로버슨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영봉패했다. /정용환기자

김보경 개막 앞두고 친선경기서 골 맛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카디프시티에서 활약중인 김보경(25·사진)이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기분 좋은 골 맛을 봤다.

김보경은 3일 웨일스 카디프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독일)과 친선경기에서 후반 12분 골을 넣었다. 8000여명의 관여 지켜보는 가운데 김보경은 양 팀이 2-2로 맞선 후반 12분 켄와인 존스의 헤딩슛이 골대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그대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0-2에서 3-2 역전까지 성공했던 카디프는 후반 39분 아비자 올리치에 동점 골을 얻어맞고 3-3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5)도 챔피언십의 레딩과 친선경기에서 풀 타임 활약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23분과 25분 웨인 라우틀리지의 연속 골로 앞선 스완지는 전반 종료를 앞두고 닉 블랙맨에 만회 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20분 새로 가세한 공격수 바페팀비 고미스가 쐐기골을 넣으며 승리를 챙겼다.

스완지시티는 9일 비야레알(스페인)과 최종 연습 경기를 펼친다. 일주일 뒤인 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용환기자

'번개' 우사인 볼트 복귀전서 신기록

11개월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우사인 볼트(28·사진)가 자메이카를 영연방경기대회 400m 계주 우승으로 이끌었다.

볼트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영연방경기대회(커먼웰스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 자메이카의 마지막 주자로 참가, 37초58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제이슨 리버모어, 케마르 베일리 콜, 니켈 아슈미드로 이어진 자메이카의 앞선 주자들은 두 번째 코너를 돌어 마지막으로 볼트에게 바통을 넘길 때까지 잉글랜드와 팽팽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볼트는 특유의 무서운 가속도를 발휘하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잉글랜드와 격차를 벌렸다. /정용환기자

프로야구 전적 3일

■ 대전

두산	001	000	001	2
한화	100	002	00X	4

프로축구 전적 3일

수원	4	1	포항
전북	2	0	전남
경남	1	1	서울